

# 文化國民을 위한 語文政策을 생각한다

—文化部の 新設에 즈음하여—

柳 穆 相

(중앙대 교수·국어학)

## I

第6共和國에 들어서 우리의 國基를 다지고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를 심으며 밖으로 韓民族의 文化的實體를 顯揚하기 위하여 政府의 한 機構로 文化部를 신설하였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時宜를 얻은 적절한 조치라 환영하는 바이다. 1948년 우리 나라 政府가 수립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政府의 조직이 바뀌었고, 한때는 文敎部가 文化와 敎育을 관장하던 때도 있었다. 또 다른 한때는 文化公報部라 이름하였지만 政府의 代辦機關 노릇에 그친 적도 있었다. 文化公報部는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文化'란 실체가 言論·放送 文化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하였다. '文化'란 말을 廣義로 해석할 때 그것은 우리 生活樣式의 總合이라 할 것이다. 悠久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독특한 삶의 틀〔格式〕들이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文化遺産인 것이다. 文化는 이것을 다시 無形的인 것과 有形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것은 이른바 精神文化요 뒤의 것은 物質文化인 것이다. 時代의 狀況에 따라 우리의 정신도 바뀌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器具들도 바뀌게 마련인 것은 당연한 역사적 변혁의 귀결인 것이다. 하지만 文化의 支柱를 이루는 精神은 民族의 主體인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이기 때문에 恒德인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여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을 創設한 것도 바로 民族主體로서의 中心思想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에 그 本旨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그 研究院이 당초의 뜻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였는가의 與否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精神文化의 本山의 소임을 다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앞날

을 위하여 요긴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 민족이 韓服을 양복으로 바꿔 입었다고 하여 마음의 기둥이 이래저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어 변혁의 큰 물결과 국제간의 다면 접촉으로 개체의 보존이 어려워지는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 말이다. 물질 문화는 생활의 편의에 따라 實利에 맞게 改裝되게 마련이지만 그것들을 지배하는 基底思想은 우리의 바른 精神 그것인 것이다. 이런 視覺에서 볼 때 새로 발족한 文化部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文化財의 收拾에 힘을 쏟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遺産 속에 담겨지고 숨겨진 無形의 精神文化가 더더욱 값진 것임을 확인하여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우리 文化의 전반적 상황에 대하여 容喙할 知識이나 見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의 文化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文化部가 취해야 할 하고많은 政策 가운데 우리 문화 국민들이 기대야 할 語文政策에 대하여 몇 가지 論及하고자 한다.

## II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하여 우리말을 우리 語音에 맞추어 바르게 적을 글자를 지니지 못하였다. 나랏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文字)라는 도구를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 적어야 할 말들이 文法性이나 音韻體系가 다른 이웃나라의 글인 漢文으로 意譯(뜻옮김)되어 15세기 중엽까지 이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15세기 중엽에 訓民正音이 창제되어 훌륭한 글자를 지닌 뒤에도 그러한 文化的羈絆은 1910년대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漢字와 漢文에 의한 文字生活이 필연적으로 大衆의 文字生活로 확산될 수 없었고 少數의 선택된 사람[이른바 士類]의 專有物 내지는 獨占文化가 되어 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다가 1945년에 解放을 맞아 급진적으로 民主時代에 접어들면서 市民社會의 幕이 열리자 다수인 市民中心의 文化改造論이 주장되고 文化主體가 大衆이어야 한다는 鮮明論理가 판을 치면서 한글專用論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革新과 保守의 對立의 樣相으로 격화되었고 어디까지나 理性的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드디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때까지의 우리의 記寫現實이 非民主的이요 反民衆의 이라는 論理가 大勢를 형성하고, 漢字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數的 對比를 근거하여 민주화를 부르짖고 아울러 感情的인 離反의 論理가 상승

적인 작용을 하여 그 불꽃이 教育의 現場까지 飛火되었던 것이다.

### 1. 社會語文教育과 學校語文教育

말과 글에 대한 바른 교육은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教育이 '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극단적인 예로 자연적인 사회의 추세에 의하여 일반 사회에서 漢字를 쓰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한자는 저절로 도태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社會는 그 社會의 여러 가지 背景의 支配를 받게 마련이다. 예컨대 新聞, 月刊誌 등이 버젓이 한글과 漢字를 섞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런 글자를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文化의 斷絶狀態를 유발한다. 斷絶에는 폐쇄에서 오는 경우와 급진적인 개방에서 오는 두 경우가 있는데 文盲을 만듦으로써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바로 폐쇄에서 오는 文化斷絶의 현상으로 이것은 文化의 後退를 가져오게 한다. 적어도 良識 있는 父兄이라면 다음 세대를 잇는 자제들이 文盲者(까막눈이)가 되어 앞 世代와의 文化的인 絕緣이나 斷絶의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에 이르는 社會에 적응하는 文字生活을 할 수 있도록 啓導할 책임이 있으며, 새로 발족한 文化部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화적 단절을 막을 책임을 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時代를 통관하여 文化遺産(文籍 등)에 능동적으로 접촉하며 장래의 문화적 상황에 대비한 文字教育은 한 나라의 교육을 도맡은 文敎部(教育部)가 책임지고 소관할 일들이다. 그런데 실사회의 記寫現實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맞는 文字生活을 할 수 있도록 啓導하는 일은 國民文化를 다스리는 文化部의 소관사이다.

### 2. 잘못 해석된 법률 제 6 호 '한글專用에 관한 法律'의 立法趣旨와 그 적용

오늘날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한글 전용의 場과 '한글·漢字 並用的 場'이 뒤바뀌었다. 곧 並用이 되어야 할 교과서(漢文敎科書 제외)는 한글 專用이 되고, 한글 專用으로도 무방할 日常의 實用文書에서는 混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統制와 規制에 있어 손쉬운 교과서 쪽에 강요되었던 결과이다. 初·中等教育에서의 한글 專用의 원칙은 1945년 末 당시 美軍政廳 아래의 '朝鮮教育審議會'의 건의에서 비롯되었다. 이어 법률

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는데 1948년 10월 공포된 法律 第6號 ‘한글專用에 관한 法律’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權泰羲의원(筆者의 中學校長선생이기도 함)의 발의로 통과된 이 법률은 해방 당시 文盲者(한글 미해독자)의 수가 70%를 훨씬 웃도는 後進社會(1944.5, 文盲者數는 77%로 통계되어 있음)에 民主主義 體制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일상의 실용 생활에서 漢字를 배제시키고 한글만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회적 사정에 바탕을 둔 立法이었던 것이다. 이 立法은 世宗 임금의 訓民正音を 창제하여 ‘便於日用耳’라 한 意趣와 완전 일치하는 ‘便易性’으로 수용할 수 있다. 世宗의 한글 創制가 漢字·漢文의 排除에 있지 않았으며 學問(당시는 性理學)을 위촉시켜 文化的 後退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崔萬理의 諺文創制反對上疏文에 대한 訊問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일반 백성들의 日常生活用字로 한글을 창제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法律 第6號가 [분명히 ‘便於日用’의 성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擴大解釋하여 現實과 未來를 잇는 教育課程에까지 適用하였던 것이다. 法律 第6號의 내용은 “우리 나라의 모든 公文書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의 다른 부처에 앞서 文敎部가 先導的으로 教育用圖書인 교과서에 한글專用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몇 번 엮치락뒤치락하기는 하였으나 근 40여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한글專用의 교과서는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서 指摘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바로 法律 第6號의 敎科書에의 適用이 合法이나, 違法이나의 문제다. ‘公文書’의 定義는 상식적으로 보아 實用文書로서 政府部處 사이에 오가는 기록 또는 告示·公告 등 各種文件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教育機關에서의 敎科書가 公文書의 테두리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사실 한글專用을 권장하거나 유도할 部處는 大衆文化와 깊이 상관하고 있는 文化公報部요, 애당초부터 교육을 맡아 한 나라의 文化 엘리트를 길러내는 文敎部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 우리와 文化的으로 오랫동안 교섭해 온 漢字를 깊은 연구나 대책도 없이 배제함으로써 傳統文化와의 斷絶을 自招하고, 더구나 ‘教育의 義務’의 圈內에 있는 국민학교도 아닌, 中等教育課程에서까지 漢字의 학습을 제약하는 것은 자유 학습권의 박탈이요 문화 유산과의 차단 행위라 규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한글 전용, 국한 혼용의 시비는 이미 흥미 잃은 고질화된 논쟁이다. 이 문제는 이미 1971년 9월에 있는 이 나라의 文化司令塔이라 할 學術院의 總理室에의 答申으로 판결이

### 6 국어생활 '90 봄(제20호)

난 것이다. 國民學校로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高等學校까지에 최소한 1,300字를 가르치도록 한다는데 대해 '全的으로 贊成한다'는 回信이 그것이다. 그러나 學術院에 구한 총리실의 諮問은 결국 유아무야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만 남은 것은 黑白으로 맞서는 贊反의 對立的인 意見의 평행선뿐이었다. 이제는 法律 第6號에 대한 명백한 有權의 解釋을 얻어내어야 하며 그 適用範圍가 확정지워져야 할 때이다.

### 3. 文化部の 當面課題

어떤 새로운 施策이 文化의 後退를 가져온다고 가정할 때 그 정책은 분명 오도된 것으로 단정해서 잘못이 없을 것이다. 文化는 下向調整을 통하여 平準化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前向的인 발전을 통하여 擴散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文化傳播의 一般的公式이 낙하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퍼진다는 것은 수정할 수 없는 鐵則이다. 文化의 役軍이 少數의 엘리트라는 이론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우리 文化의 後退가 高級文化의 創造機關인 教育機關에서의 語文政策에 一因이 있었다는 것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國民文化, 大衆文化와 상관하여 文化部가 취해야 할 言語文化政策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될 수 있다.

- (가) 맞춤법 適用의 생활화
- (나) 표준어의 보급화
- (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통일
- (라) 實用漢字를 위한 社會教育
- (마) 한국어대사전의 편찬 사업
- (바)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위에 든 각 항에 대하여 간단히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 (가) 맞춤법의 생활화

'한글맞춤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말을 적을 적에 준용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정해 놓은 바른 표기법이다. 그리고 1989년 3월부터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터이다. 良法이야 말할 나위가 없지만 비록 惡法이라 하더라도 법은 법이다. '한글맞춤법'에 대하여 항간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리쿵저리쿵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또한 그러한 말 가운데 一理가 없는 바 아니다. 무릇 모든 법률이 다 그렇듯이 맞춤법의 규정들이

‘天衣無縫’이란 말처럼 盡善盡美하여 완전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으로 결정한 이상, 다시 법으로 개정할 하기 전에는 이 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1호라 이를 만든 글자를 가지고 글을 적는데 있어 국가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은 모든 문명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文化의 常道이다. 국토가 남과 북으로 양단되어 맞춤법도 자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남북의 다른 표기의 방법 등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속 연구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정한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적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이것은 文化國民의 첫 교양이다. 文化部는 학교에서의 각종 교과서나 신문들만이 지킬 성질의 것으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휴대에 편리한 크기의 ‘맞춤법 편람’(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 널리 홍보하여 국민적인 준용이 이루어지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오늘의 맞춤법은 ‘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法’이란 사실이다.

#### (나) 표준어의 보급화

‘표준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査定된 標準語에 의하여 규정될 수밖에 없다. 편의상 표준어를 語彙와 發音의 두 측면에서 볼 때, 語彙는 査定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發音의 경우는 표준 발음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문서상의 규정만으로 그 실현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실제의 발음에 있어 ‘소리의 길이’라든가 ‘된소리되기’의 잘못된 발음 또는 語法에 맞지 않는 말들로 해서 非標準語로 물고 가는 언어 현상을 일상 생활에서 심심찮게 청취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형용사 語幹+고 있습니다’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본다. 표준어는 마스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입을 통하여 보급되는 게 첩경이다. 전파를 통하여 전달되는 방송인의 육성 발음이 국내외에 전파됨으로써 바른 우리말이 널리 터잡게 되는 것이다. 그 길만이 廣域化와 迅速化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표준어를 이른바 ‘문화어’란 이름으로 개칭하여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휘 체계와 발음법으로 그 문화어를 보급화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사이의 異質化現象은 국내에서는 感知되지 않으나 2백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중국의 東北三省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것이다. 표준 발음법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어휘 중심이기 때문), 말의 抑揚法이나 語尾法에 의한 敬語法에 큰 혼란이 있음을 실감한다. 신문,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大衆媒體)의 전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라디오 등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망을 통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

의 말인 서울말'을 널리 전파하여 통일된 한국어 만드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複數標準語를 인정한 이상, 숨겨진 방언 속에서 쓸만한 어휘들을 채록하여 표준어화하는 과제도 서둘러야 할 작업이다. 우리의 '표준어규정'中 '표준발음법'이 어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의 抑揚法이나 語尾法에 의한 敬語 表示 등이 소홀히 다루어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의 손질이 필요하다.

#### (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은 실태를 보면 각양각색이다. 지도상의 표기와 철도역의 표기, 도로상의 표기, 간판에서의 표기 등이 제각기 다르다. 물론 남북한 사이에도 대응 표기가 다르다. 얼마전 영국에 있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에 대한 통일을 의뢰해 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통일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를 누리고 있는 국가로서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라 생각된다. 남북간의 교류는 語文政策과 같은 非政治的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러한 접촉이 異質化를 극소화시키는 첫 단계의 방책 내지는 대책이 될 수 있다.

#### (라) 實用漢字를 위한 사회 교육

우리 어휘 체계 속에 자리잡은 漢字語가 전체 어휘의 과반수를 훨씬 웃돈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다. 漢字의 학습은 한자로 써야 하는 경우의 대응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言語能力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한자어 자체는 표준어, 비표준어로 변별하거나 대립시킬 성질의 것이 못 된다. 漢字 그 자체가 강한 造語力을 지니고, 그것을 구성 요소로 하여 새로운 어휘들을 수없이 量産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新生語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그 造語의 語源이 되는 漢字를 익히는 것이 語源學的으로 보아 당연한 이론이다. 大學에 와서 한자를 익혀야 하는 逆機能의 시대가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言論機關이나 出版機關 등을 통하여 使用의 頻度數가 높고 結合力이 강한 實用漢字를 조사하여 일정 한도의 '生活常用漢字'를 劃定하여 自學自習하게 함으로써 文明 속의 文盲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진진한 語文政策이 아니겠는가. 유서 깊은 古蹟址를 찾는 젊은이들의 눈에 漢字·漢文이 저 西歐의 外國語보다 더 낯선 글자로 비추어졌다면 그것이 누구의 탓이라 할 것인가. 文化部는 지나친 漢字의 濫用을 막을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최소한의 실용성 있는 漢字의 効用策을 강구할 책임이 또한 있다. 우리는 漢字文化圈 속에서 살고 있다.

필자는 보통학교(지금의 국민학교) 1·2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漢字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의 당시 주소지까지도, 무엇으로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記憶裝置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文字敎育은 이르면 이룰수록 더욱 효율적인 것이다. 實用上的 측면에서 略字나 簡字의 制定도 해야 하며 그러한 簡·略字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실용상으로 볼 때 적절한 대응인 것이다.

#### (마) 국어대사전의 편찬

‘우리말큰사전’(전 6권, 1936.4~1957.10)이 民間學會인 한글학회의 주도 아래 20여년의 긴 세월 끝에 完刊을 본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사실 록펠러 재단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그 完刊마저도 어려울 뻔했다. 겹친 나라 살림의 어려움때문에 사업다운 문화 사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선 북한의 어문 정책을 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업적의 내용이 높이 평가될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배려이다) 이 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나라의 位相이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진 오늘이다. 앞으로는 나라가 주도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각종 文籍의 國譯事業, 大辭典의 편찬 등을 국가의 豫算으로 경영할 때가 되었다. 文化部가 研究機關이 될 수 없으므로 傘下의 國語研究所와 같은 연구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획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文化廳의 語文關係 調査나 研究 또는 國立國語研究所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는 것도 一助는 될 것이다. 文化事業은 短期的이어서는 안 되며 敎育의 문제가 영원의 문제인 것처럼 長期性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 (바) 文化國民의 資質을 높이는 노력

국민의 文化水準은 讀書에 비례한다. 국민의 文化向上的 지름길이 바로 독서에 있다. 대학 4년을 졸업한 뒤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의 새 가정을 방문해 보라. 그네들이 대학에서 갖고 뒀으며 배운 책들을 書架에 얼마쯤 간직하고 있는가를. 대학을 졸업한 여자 대학 출신의 젊은 신부들의 집 꾸러미 속도 점점해 볼 만하다. 오늘날의 현실로 보아 독서다운 독서는 학교 교육과 더불어 중지부를 찍고 마는 판이다. 이러한 독서의 不況은 개인의 나태와 文化空間(讀書空間)의 불모성에 큰 영향이 있다. 文化的인 素養을 대중에게 심어 주기 위하여 지역 단위로 公共圖書館을 설립하여 마음의 道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메마른 젊은이들의 가슴에 꿈과 지혜의 세계를 열어 주어야 한다. 敎育機關의 부속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당해 교육 부서의 소관이나, 국민 대중을 위한 文化施設로서의 도서관은 文化部가

관장하여 社會性과 時代性에 맞는 文化素養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체의 단련을 위한 각종 시설—각종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독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德目を 글을 통하여 익히게 될 때 민주주의로 향하는 앞길이 활짝 열리고 맑고 밝은 사회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 Ⅲ

語文政策을 말하면서 떠오르는 두 가지 교차되는 생각이 있다. 하나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다가 혹독한 매질을 당한 선열의 수난의 역사요, 다른 하나는 우리말을 이 지구상에서 말살하려 들었던 異民族의 強壓 그것이다. 민족은 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지만 결국 민족의 徵表는 언어로 가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덜못이 바로 言語인 것이다. 이처럼 생각할 때 세계 속의 한국을 그리고 한국 문화를 논함에 있어 우리말 없이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통하여 Anglo-Saxonism적인 思考에 의존하듯이 우리는 우리말에 의하여 한국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이 담겨진 그 말에 의지해서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가 피어나는 것이다.

‘文化의 精華’라 할 언어는 지금까지 우리의 온갖 文化를 낳았고, 앞으로 길이길이 우리의 文化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문화의 씨’인 말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우리의 思考를 바로 서게 하고, 우리가 사고를 바르게 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文化園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체육부에 이어 문화부가 탄생한 데 대하여 축복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무궁한 건강(?)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漢字(漢文)眞書論을 내세울 전시대적인 俗物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글자나 글의 필요가 ‘場’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또한 받아야 한다는 文化의 當爲性이다. 정책 입안자는 편견이 얼마나 有害로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거듭거듭 음미해야 할 것이다. □